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, 운전부주의 적발 시 보험료 40% 추가 부담

□ 영국 교통부가 4월 21일 도로안전 제고방안 중 하나로 운전부주의 습관 개선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 속에 시행되어 온 운전부주의자 추가 보험료 부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.

○ 영국 운전자 중 77% 정도가 운전 중에 라디오 또는 음악 CD를 조작하며, 50%가 음식물을 섭취한다고 조사됨에 따라 운전습관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.

□ 영국의 일부 자동차보험회사들은 CD10항에 의거하여 운전 중 음식물 섭취, 지도보기, 음악 크게 듣기 등을 운전부주의 행위로 규정하고, 적발된 운전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옴.

○ 영국에서는 CD10항(운전부주의 및 집중소홀 시 벌과금 징수)에 의거하여 매년 25,300여명의 운전자가 운전부주의로 적발되며, 이들은 현장에서 60파운드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을 부과 받음.

○ 자동차보험회사인 Kwik-Fit는 운전부주의 적발시 평균적으로 188파운드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켰는데 이에 따라 보험료는 40%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(추가 부담 이전: 470파운드 → 추가 부담 이후: 658파운드).

자동차보험회사	운전부주의로 인한 추가 부담
Kwik-Fit	40% 추가 부담
AA	37% 추가 부담
Sainsbury	28% 추가 부담
Privilege	17% 추가 부담
Allianz, Zurich, Endsleigh	추가 부담 실시

□ 한편, 보험회사와 운전부주의 적발자는 벌칙성 추가 보험료 적용과 관련하여 각자의 주장이 크게 상반되는 모습임.

○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운전부주의와 자동차사고 인명손실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벌칙성 추가 보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○ 운전자협회와 운전부주의 적발자들은 운전 중 대화, 크게 웃는 행동, 심지어 과일을 들고 있는 것조차 운전부주의로 단속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며, 보험회사의 추가 보험료 적용은 지나친 이익추구라는 입장임.

(영국 교통부 'Making Britain's Roads the Safest in the World' 4/21, Mail online 4/21)